송천동 에코 DK몰 사태 현장 간담회 개최

우범기 전주시장, 유관기관과 입점 상인 현장 목소리 청취·해결방안 모색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 DK몰 사태와 관련, 인근 상인의 피해 상황을 듣고 유관 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송천동 에코 시티 DK목 이근에서 저북도와 중소기 업청,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에코시티 DK몰은 소유자의 경 영난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체납되는 등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난 21일 한전으로부터 단전이 이뤄

이에 따라 이마트 에코시티점 등 20 여 개 입점 업체들이 임시휴업에 들어 갔다. 그에 입점 상인들과 주변 상인 들, 인근 주민들은 큰 피해 및 불편을

이날 현장 간담회는 DK몰 폐쇄에 따 른 주변 상인들의 피해 상황과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송천동 에코시티 DK몰 인근에서 전북도와 중소기업청, 경제 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을 우 시장은 간담회에서 문제해결을 협의체를 통해 접수받은 후 참여 기관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한국전력 및 별 지원 방안을 정리하고 추후 정책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경제통상진흥원, 방향 수립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 신용보증재단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

또 시는 지난 21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대책 협의체 를 구성했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시 일자리센터 연계 일자리 지원 및 시용보증재단 여계 대출 지워 등 행정 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법률 및 일자리, 경영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영 업 현황 및 휴ㆍ폐점, 철수 동향을 꾸 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 DK몰 단 전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포 직원들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영업 재개 등 해결 방안을 미련하고자 한국전력 측과 단전 유예를 협의하고 소유자의 전기요금 납부 방안을 논의하 는 등 영업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사태 수습을 위한 현장 대응에 힘써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에코시티 DK몰 단점으로 인해 억울하 소상공인과 피 해 시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 다"면서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 의와 현장 소통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민선8기 공약 이행과정 시민과 점검

주민배심원 1차 회의 개최

전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 이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 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3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35명의 주민배 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 약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 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

전주시, 음식점 화장실 시설 · 환경개선 사업 완료

점검 방식 중 하나로, 시는 다양한 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촘촘하게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 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민선8기 공약 이행 점검 및 공약 변경 적정 여부 심의, 개선방안 제안 등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첫 회의에는 △주민배심원 위 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향후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담당 부서의 진행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임 별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 위해 혐의체를 구성했다고 알렸다.

마지막인 3차 회의에서는 분임 및 전체 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 안건 승 인 여부 및 개선 권고안을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와 권고 안을 오는 12월 중 전주시 누리집에 개하고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민배심원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에 의뢰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 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의 음 성 응답시스템(ARS)과 2차 전화 면접 등을 거쳐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35명의 배심원을 선발했다.

우범기 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전주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 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제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 해 공약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 전주의 미래를 실현하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빛났다

수소의 날 기념식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전주시는 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 국수소연합이 주관하는 '제4회 수 소의 날 기념식 에서 수소경제 활 성화 분야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 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수소차 보급 및 수 소충전소 구축,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성 과를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20년 수소시 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신형 고 압 수소 튜브트레일러 도입, 전국 최초 광역단위 수소 안전관리 시 스템 구축, 공공시설 수소 연료전 지 실증 등 수소사회 전환의 첫걸 음을 내디뎠다.

또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 을 통해 수소전기차 1300여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7개소를 구 축해 수소 활용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수소버스는 총 225대를 보 급하여 전국 지자체 중 2위 수준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 문기업 2개사, 예비수소전문기업 9 개시를 발굴 및 지원했으며, 수소



기언 및 지역 대하고 여계해 수소 산업 전문인력 70여 명을 양성했

이밖에도 수소저장용기의 대형 화 · 고압화 기술개발 및 안정성 검증이 가능한 수소저장용기 시험 인증센터를 구축해 수소기업의 제 품 실증 인프라를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시가 수소 인프 라 구축, 수소산업 기반 조성 등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 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소 인프라 확충, 수소기업 지원 등 수 소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에 대한 교육 △5개 분임조 구성 및 게시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

성과 음식점 화장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26개소를 대 상으로 화장실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업은 소규모 음식점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위생 수 준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 시키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노후화 된 음식점과 착한가격 음식점을 대상 으로 일부 업소에게는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00만 원

전주시는 올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 내에서 지원을, 착한가격 음식점에는 화장실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업 완료 후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 과, 지원 대상 업소의 92%가 만족한다 고 답변하였고, 95%가 청결하게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착 한가격 음식점 대상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 청소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컨설팅,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을 지원하여 업소들로부터 높은 민족 /권희성 기자 도를 얻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은 3일 '지방공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역량 강 화 교육을 열고, 지방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은 공단 내 부장, 팀장을 대상으로 조직의 핵심 리더들이 변화 에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 역량 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강의를 한 한국지방공기업정책 포럼 이희석 회장은 "지방공기업이 지 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 의적 조직 문화와 유연한 리더십이 필

수"라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의 통찰력이 곧 기관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상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 쟁력은 결국 사람과 리더십에서 비롯 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리자 들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 량 강화와 혁신 문화 확산을 통해 시 민이 신뢰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 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북큐레이션 전시 운영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 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사 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도서관의 경계를 넘어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북큐레이션 전시를 운영한 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에 방문할 여유 가 없는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자연스 럽게 책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독서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움직이는 북큐레이션은 전주지역 청 년 입주 기업과 더불어 △청년이음전 주 △전주혁신창업허브 △전북연구개 발특구 △전북테크노파크 등 4개 청년 활동 공간의 내부 업무 공유 공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상주 직원뿐만 아 니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 에게 열려있어 누구나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책을 통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



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직장인 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심사와 고민을 반영한 △마음껏책장(마음치유) △째 깍째깍(변화하는 세상 따라잡기) △작 심 0 일(취미부자의 일과 삶의 균형 맞 추기) <u>△말솜씨(대화, 인간관계)</u> <u>△</u>시 간짓기(흐르는 세월 가꾸기) 등 주제 도서 70여 권을 담은 전주도서관의 특 별한 서가와 더불어 '마음을 붙잡은 한 줄'을 기록할 수 있는 필사 엽서도 즐길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지방공기업 지속가능 발전 전략 모색